전북금연지원센터
금연성공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용동 344-2) 원광대학교병원 외래1관 1층
TEL | 063) 859-2400 ~ 2410 FAX | 063) 859-2414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곽 경 문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6년 7월 8일 금요일 (음 6월 5일) 제1597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063)288-9700

7일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이형규정무부지사, 김태용HN게임즈대표, 이신우 전라북도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 원장, 가종현 (주)효성 전무, 김진수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등 관련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산 우수 모바일 게임의 발굴, 홍보, 해외진출 등에 대한 적극 지원을 주 내용으로 하는 '전북게임벤처 스마트-TV 게임 글로벌 진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사진 왼쪽부터 김태용HN게임즈대표, 이신우 전북도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 원장, 이형규 정무부지사, 가종현 (주)효성 전무, 김진수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도내 게임벤처 '대륙을 점령하라'

도-효성 등 5개기관, 글로벌 진출 협약… 중국 스마트-TV 이용 틈새시장 공략

HN게임즈, 도내 게임 콘텐츠만 런칭키로… 전북 업체들의 진출 현실화 기대

전북도내 게임 벤처기업들의 중국시장 진출에 청신호가 켜졌다.

전북도와 효성이 중국 스마트 TV 게임시장 진출에 팔을 걷고 나섰기 때문이다.

앞서 도는 게임산업의 중국시장 진출에 많은 도전을 했지만 대만까지만 진출하는 아쉬움을 남겼기에 이번 지원에 귀추가 주목된다.

7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주)효성과 전북도,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HN게임즈, 전북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 등 5개기관은 국산 우수 모바일 게임의 발굴·홍보·해외진출 등에 대한 적극 지원을 주 내용으로 하는 '전북게임벤처 스마트-TV 게임 글로벌 진출' MOU를 체결했다.

진출방식은 매년 7천만대씩 늘어나는 중국 스마트-TV를 이용한 틈새시장 공략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전북문화콘텐츠사업진흥원은 국산 우수게임을 추천한다.

HN게임즈는 중국 스마트-TV 게임 퍼블리싱업체인 NS스튜디오를 통해 중국의 유투브라 불리며 월 방문자 1억명 이상인 러스왕(LeTV)과 하이센스(Hisense) 등의 콘텐츠 플렛폼안에 전북지역 게임회사의 런칭-게임존을 만들어 탑재하는 판매를 담당한다.

특히 러스왕, 하이센스 등과는 파트너쉽 계약이 체결돼 있어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HN게임즈(SPC, 특수목적법인) (주)효성과 펀드 운용사(VC)인 SJ투자파트너스가 효성창조경제펀드 10억원을 투자해 설립했다.

중국 스마트-TV 보급은 매년 급증하는 가운데 스마트-TV 게임시장은 향후 25조원대의 규모를 이룰 것으로 예상되는 거대 수요에도 불구하고 공급되는 콘텐츠는 턱 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도는 사업의 빠른 정착과 안정화를 통해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협약기관 간 게임 발굴, 홍보, 마케팅, 해외 진출 지원방안 등을 분담해 올 8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도의 게임 산업은 정보부족과 수익배분 등의 문제로 중국 진출의 벽을 넘지 못하고 대만 진출만으로 씁쓸함을 달래야 했다.

이번 업무 협약은 새로운 콘텐츠 플렛폼 제시로 중국 시장 진출 교두보를 마련해 도내 게임산업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HN게임즈는 전북도내 벤처게임 기업의 게임 콘텐츠만 중국 시장에 런칭 시킨다는 계획을 가져 도내 게임업체들의 중국 입성이 현실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 이형규 정무부지사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애플리케이션 스토어가 활성화 되고, 콘텐츠 플랫폼을 통해 전북 게임 개발사의 우수한 콘텐츠가 더 많은 고객에게 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며 "스마트 TV 게임 시장의 유통 플랫폼을 다변화해 전북도 벤처게임 기업들의 수익구조가 합리적으로 개선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찾아 지원 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효성창조경제펀드 200억원, 성장사다리펀드 100억원을 조성해 현재까지 70억 원의 지원 실적을 거두고 있는 효성과 전북은 출자 및 투자유치를 이어가고 있다.

/정영수 기자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

▶ 매일 INDEX

4면 전주시의회 후반기 원구성 더민주 독식

전북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지역연계·상생 앞장

지역업체 이용 160여억원
한전 희망공부방 운영
농진청 사랑나눔행사 등
봉사·초청행사 등도 활발

전북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지역업체를 이용하는 등 지역연계·상생에 앞장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소 지역경제와 중소기업을 챙긴다고 했던 기관들이기에 지역과의 상생을 위한 행보에 도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7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이전 공공기관들의 지역업체 이용 실적은 160여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기관별로는 ▲지방행정연수원 48억원(교육교재 인쇄·청사 관리 등) ▲한국국토정보공사 53억원(용역·인쇄물 등) ▲농촌진흥청 및 소속기관 24억원(인쇄물 등) ▲한국전기안전공사 15억원(경비용역·비품구입 등) ▲한국농수산대학 12억원(실습수업재료 등) ▲국민연금공단 5억원(지역물품구매 등)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4억원(사무용품 등) 등이다.

지역업체 이용실적은 이전 후 현재까지 이용한 것으로 적게는 2015년도 한해 실적, 많게는 2014년부터 올해까지의 이용실적이다.

이전 공공기관들은 지역과의 융화을 위해 지역업체를 이용하는 것 뿐만 아니라 봉사활동·초청행사 등의 활동도 활발히 펼치고 있다.

이전 공공기관들은 2015년 한해에만 예산규모 총 1억8천여만원에 달하는 50여건의 봉사활동을 펼쳤다.

또한 기관별 특성에 맞게 다양한 지역 연계사업도 펼치고 있다.

봉사활동으로는 국민연금공단이 메르스 격리마을에 대한 구호물품 전달과 약 9천만원에 이르는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재래시장 물품구매, 한국전기안전공사의 희망공부방운영(6회, 3천5백만), 농진청 및 소속기관의 사랑나눔행사 및 전통시장 방문(8회, 2천만원),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추석·연말의 사랑나눔행사(4회, 3천만원) 등이 돋보인다.

기관별 지역연계 사업으로는 농진청이 전북 6차산업 발전을 위해 23개소의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방행정연수원은 연수 중인 직원들에게 안덕힐링마을과 완주로컬푸드 등 다양한 지역문화 체험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한국국토정보공사는 드론 등을 활용한 CCTV 이용 주차시스템 개발을 도내 중소기업과 사업계획 수립 및 연구 중에 있으며, 한국전기안정공사는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공구매 상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계속 이전 공공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각 기관의 지역연계 사업의 다양화·활성화를 유도하고 입주기관의 안정적 정착 지원과 상생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영수 기자

더민주 "국가브랜드 '표절'이 창조경제인가?"

더불어민주당은 7일 "35억원 짜리 국가브랜드를 '미투(Me too)' 브랜드로 만드는 것이 창조경제인가"라고 재차 비판했다. 〈관련기사 12면〉

강희용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전날 표절 논란을 해명한 데 대해 "정부가 한가하게 '남들이 썼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강변한 것이다. 참으로 역설적이고 창의적인 주장"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강 부대변인은 "마치 허니버터칩과 초코파이 흥행 이후 쏟아져 나온 각종 미투 브랜드들을 보는 기시감이 든다"며 "35억짜리 국가브랜드가 미투 브랜드라면 이건 자긍심이 아니라 자괴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디자인의 표절 논란과 그 판단은 고도의 전문적 영역이기에 쉽게 예단할 수 없다"면서도 "그 최종 수요자가 일반 국민과 전 세계인이라는 점에서 일반의 상식과 눈높이에 부합해야 함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새 국가브랜드 '크리에이티브 코리아(CREATIVE KOREA)'의 디자인 표절 의혹과 관련 "표절이 아니다"라며, 프랑스의 'CREATIVE FRANCE' 캠페인 로고와의 유사성에 대해 "발표 전 사전 검토를 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김민근 기자